구국 넘어 근대의식 발현

AI로 되살린 스님 독립운동가

② 비구니 스님들과 독립운동

일본제국이 대한제국에 반강제적으로 제공한 차관 1300만원을 국민이 갚자고 한 국채보상운동(1907). '담배 끊기'를 통해 3개월 내 국채 상황을 목표로 한 이 때, 여자는 이 나라 백성이 아니냐며 전국 '부인회'를 중심으로 여성도 당당히 국난극복에 참여할 의사를 밝혔다. 의식의 변화는 세속 여성들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비구니 스님들도 같은 마음에서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했다. 당시 스님들은 정치와 사회영역에서 배제됐고, 비구니 스님의 경우 차별과 배제는 더 심했다. 그럼에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사회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을 살펴본다. 이번 AI이미지는 암울한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모습을 표현하고자 웃는 모습으로 복원했다.

정리=신중일 · 임은호 기자

국채보상운동과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스님 40명



1907년 3월 3일 불교연구회 주도로 불교계도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의했다. 승단의 국채보상운동에 먼저 참여한 사람들은 비구 스님이 아니라 비구니 스님들이었다.

1907년 3월 14일자 '대한매일신보' 등에 따르면 40명의 서울 옥수동 미타사 비구니 스님들이 국채보상운동에 동참했다. 당시 서울 비구니 스님들이 잘 단합돼 있고 사회참여에도 적극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구니 스님들의 국채보상운동은 단순한 구국의식을 넘어 성과 신분의 평등을 향한 근대의식의 발현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제주 봉려관 스님의 항일운동



제주 불교를 중흥시킨 비구니 봉려관 스님(蓬慮觀, 1865~1938)의 활동 시기는 개항 전후부터 일제강점기에 걸쳐 있다. 스님의 항일운동은 군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항일인사들에게 의식주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초기에는 불사를 가장한 탁발을 통해 군자금을 조달했다. 제주불교가 자리를 잡게 되자 모인 액수가 늘어났고 이렇게 모인 군자금은 육지에까지 전달됐다. 생전 봉려관 스님의 활약상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었으므로 언론에서 자주 조명됐지만 스님의 입적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던 점은 스님이 항일운동을 했기 때문임을 역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임시정부서 활약한 보각 스님

보각(寶覺, 1904~2006) 스님은 이화여전 영문과 재학 당시 유관순(1902~1920)과 기숙사 룸메이트를 지내며 함께 나라 없는 설움을 토로하다 태극기를 만들어 기숙사 친구들에게 독립의 중요성을 일깨우자고 의기투합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극기를 36개 기숙사 방문에 몰래 붙이기도 했다. 고향 청양에서도 태극기를 만들어 만세운동을 준비하다 발각돼 경찰서로 끌려가 곤욕을 당했다. 중국 임시정부에서 독립운동을 도왔고 해방 후에는 김구 선생을 2년간 보좌했다. 마야부인회를 결성해 재가불자여성의 활동을 촉진시켰으며 정화운동에도 참여해 재가자로서 공헌하다 1958년 출가해 하남에 통일정사를 창건하고 평생을 민족통일을 염원하며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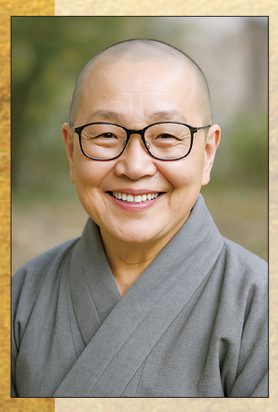


독립군자금 모아 준 청룡사 상근 스님

서울 동대문 청룡사 상근(祥根, 1872~1951) 스님은 민족 대표 33인 중 불교계 대표인 한용운, 백용성, 백초월 스님 등 여러 스님을 받들어 독립운동에 숨은 역할을 했다.

스님은 1894년부터 금강산 장안사 영원암, 유점사 반야암 등에서 정진했다. 1918년까지 치열히 정진한 스님은 청룡사로 돌아온 다음 해 3·1운동이 일어나자 독립군 지원 자금을 마련하는 데 매진했다. 봉려관 스님과도 가깝게 지내며 바다를 가로질러 제주와 금강산에서 함께 독립운동에 참여하며 자금을 모으고 운반하는 데 많은 활약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인물들이 모두 입적하면서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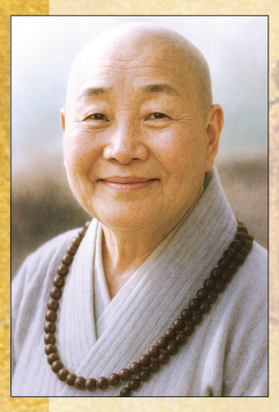
독립운동가 옥바라지 한 옥봉 스님



옥봉(玉峰, 1913~2010) 스님은 저명한 묵죽화가로 1931년 18세때 금강산인 일주 김진우(1883~1950)의 제자가 돼 그림을 배우던 중 스승과 함께 독립운동에 뛰어들었다. 19세 때 일주 선생의 명에 따라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만해 스님을 비롯해 여운형, 홍명희 선생 등의 연락책과 김정호, 서정관 씨 등의 자금 조달책을 맡는 등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했다. 연락 임무를 띠고 만주로 가다 남양에서 일본 경찰에 연행돼 1개월간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애국지사들을 도와 피와 투쟁으로 얻은 조국 광복이 결국 좌우의 이념 갈등으로 동족상잔의 비극으로 치닫는 것을 보며 인생무상을 느낀 스님은 결국 붓을 놓고 42세에 늦깎이 출가를 결심해 1954년 동학사 미타암에서 삭발 염의했다.

독립운동 참여 가족 잃고 출가한 장일 스님



동화사 내원암 장일(長一, 1916~1997) 스님은 부친이 독립운동가였다. 스님이 2살 때부터 부친은 독립운동 거점 확보를 위해 대구에서 황해도로 피난을 가 많은 수난을 겪었다. 스님은 7세의 어린 나이에 비밀 서류를 전해 주는 '꼬마 스파이' 노릇을 하면서 나라 잃은 아픔을 절실히 느꼈고 조국에 대한 애국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17~18세에는 오빠들을 따라 독립운동을 돕다가 경찰서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기도 했다. 23세였던 1939년, 오빠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모두 러시아로 망명한 후 돌아오지 않자 나라 잃은 백성의 설움을 뼈저리게 느끼고 서산 대사나 사명 대사 같이 나라를 구하겠다는 원대한 뜻을 품고 출가의 길에 올랐다. 스님은 출가 후 오직 참선을 통해 깨치겠다는 일념으로 철저한 기도와 수행을 했고 정화운동에도 크게 기여했다.

*<역사 속 한국비구니>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 저, 민족사, 2024) 참조

문화로 기리는 불교 독립운동

뮤지컬 '비 · 스 · 독' 비구니 스님 독립운동사
교성곡 '용성' 용성 스님의 삶과 사상 조명
백초월 스님 기리는 공연과 '진관아리랑'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헌신한 스님들의 삶과 정신이 무대 위에서 다시 피어오른다. 춤과 음악, 뮤지컬 등 다양한 장르의 문화콘텐츠를 통해 불교계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 용성 스님의 삶과 정신을 음악으로 승화한 교성곡 '용성',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과 '진관사 태극기'의 의미를 새기는 공연들, 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을 다룬 뮤지컬 '비·스·독' 등이 대표적이다.



뮤지컬 '비 · 스 · 독'의 한 장면.



교성곡 '용성' 공연 모습.



백초월 스님 추모 합창곡 '진관아리랑' 초연 모습.

백용성 스님 삶과 정신, 음악으로 승화

교성곡 '용성'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으로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불교 근대화에 앞장선 선지식 백용성 스님(1864~1940)의 삶을 음악으로 되살린 창작곡이다. 용성 스님은 찬불가를 최초로 작곡한 민족음악가다.

교성곡 '용성'은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도문 스님의 원작을 바탕으로 故목정배 교수가 작사하고, 조계종 불교음악원장 박범훈 교수(동국대 한국음악과 석좌교수)가 작곡했다. 2012년 초연 이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

올해 4월에는 조계종 불교음악원과 평택시립국악관현악단이 공동 주최한 '광복 80주년 기념 봉축음악회' 무대에 다시 올려졌다. 탄생부터 유년 시절, 출가와 시련, 3·1운동에서 대각운동까지 이어지는 스님의 파란만장한 삶의 굴절을 국악관현악 반주와 합창, 독창 등으로 전달한다. 스님의 독립운동가로서의 면모와 불교 개혁자로서의 철학을 담아낸 수작이자, 교성곡이라는 장르를 통해 전통과 현대, 종교와 예술이 만나는 완성도 높은 공연으로 평가받고 있다.

춤·국극·합창으로 되새기는 백초월 스님

불교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백초월 스님(1878~1944)의 삶은 춤과 노래, 국극 등 다채로운 문화콘텐츠로 되살아나고 있다.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거점 사찰인 서울 진관사(주지 법해 스님)는 지난해 2월 '백초월 스님 선양회'를 공식 발족하고 추모공연 '새벽빗 비쵤제'를 무대에 올렸다. 이날 공연에서는 진관사수륙재보존회와 서울경기춤연구회가 헌정무 '나비승무'와 헌정가 '태극기'를 선보였다.

올해 6월에는 백초월 스님의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진관사 태극기'에 담긴 애국정신을 예술로 승화한 '2025 백초월길 예술축제 진관아리랑'을 개최했다. 축제에서는 '백초월 스님의 조국과 태극기 사랑'을 주제로 한 여성소리국극과 정명자 살품이춤 이수자의 '진관 살풀이춤'이 펼쳐져 관람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이날 축제에서는 합창곡 '진관아리랑'이 초연돼 의미를 더했다. 김연갑 아리랑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작사하고 박범훈 교수가 작곡한 '진관아리랑'은 진관사의 역사와 백초월 스님의 정신을 흥겨운 멜로디로 표현한 합창곡이다. 사찰명이 사용된 최초의 '아리랑'이기도 하다.

뮤지컬로 만나는 비구니 스님 독립운동

올해 2월 처음 막을 올린 뮤지컬 '비·스·독-비구니 스님들의 독립운동 이야기'는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비구니 스님들의 항일운동을 조명한 창작 뮤지컬이다. 전구비구니회(회장 광용 스님) 주최, 한국비구니승가연구소(소장 심원 스님) 주관, 뮤지컬 극단 야성이 제작했다.

1막에서는 국채보상운동에 참여한 옥수동 미타사의 40여 명 비구니 스님, 유관순 열사 친구로 3·1운동에서 활약했던 보각 스님, 독립자금 조달과 연락책을 맡고 안창호 선생의 옥바라지를 했던 옥봉 스님 이야기가 그려진다.

2막에서는 제주불교의 중흥과 독립운동에 힘쓴 봉려관 스님과 상좌 성해 스님,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한 상근 스님의 행적을 담았다. 다큐멘터리적인 서사와 경쾌한 창작음악, 무대극을 결합한 새로운 형식으로 초연 직후 호평이 이어졌다.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신념을 예술로 기리는 이 같은 '문화 독립운동'은 불교계의 자긍심을 높이는 동시에, 역사를 기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는 뜻깊은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여수령 기자